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자료 No.54



SHIZUOKA
UD
10th
ANNIVERSARY

SHIZUOKA UD 10th ANNIVERSARY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10년의 기록

2009년 3월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10년의 기록

1999.4-2009.3

SHIZUOKA
UD
10th
ANNIVERSARY

시즈오카현

인 사 말

시즈오카현은 연령, 성별, 능력, 언어 등 개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즈오카'를 실현하기 위해 1999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즈오카현의 기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현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2010」을 책정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보급을 비롯해 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적극 도입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실천하는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생 생활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부국유덕 창지협동(富國有德 創知協働)」의 이념 하에 「현민의 생활 만족도 일본 제일」을 표방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현민 생활에 보급·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올해는 시즈오카현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기념스러운 해입니다. 이를 기회로 지금까지 실천해온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요 시책과 실천 사례 등 10년 동안의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 「기념지」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을 비롯해 사업자와 단체,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천하는데 있어 이 「기념지」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시즈오카현지사 이시카와 요시노부

表2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10년에 즈음하여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장

고세 사토시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교수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진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유니버설 디자인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가 있는 후 한동안 시즈오카현을 떠나 있었으나, 2003년 4월부터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에 재직하게 되면서 다시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즈오카현의 의도가 직접 실시하는 시책을 넘어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자체 주민을 위해 행하는 도시 조성과 공공 건물 정비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토대로 실시하고 그를 통해 축적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단체 등은 경제 원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 산업의 경우는 대가를 확실히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단체,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의식하지 않아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토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생활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드는 것이므로 남의 일 처럼 느꼈던 고령화 문제가 어느덧 자신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젊고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형성된 현재의 사회 구조에 대해, 과연 나이를 들어도 괜찮을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한 재점검을 가볍게 여기면 언젠가는 자신의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남의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의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항상 의식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당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머리말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시즈오카현은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현이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고 환경의 세기라 일컫는 21세기를 앞에 둔 1999년의 일이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1980년대에 제창한 개념으로, 도시 조성 및 제품 등에 도입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시즈오카현은 이러한 개념을 시즈오카현에 맞게 정립해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 능력, 언어 등 사람에 따라 다른 특성과 차이점을 초월해 처음부터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쉽도록 배려한 환경, 건물, 시설, 제품, 서비스, 제도, 교육 등을 정비해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추진 배경

시즈오카현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권 존중

시즈오카현은 1997년 인권계몽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서로가 화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가를 비롯해 외국인과의 공생, 아동 학대, 가정내 폭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비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즈오카현 복지도시건설 조례」의 확대

시즈오카현은 1996년도에 「복지도시건설 조례」를 시행했으나, 복지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인지 조례 시책이 일부 행정 분야에 그치고 현청 전체로까지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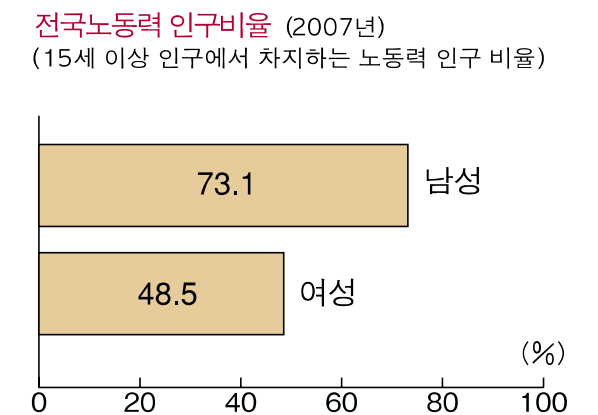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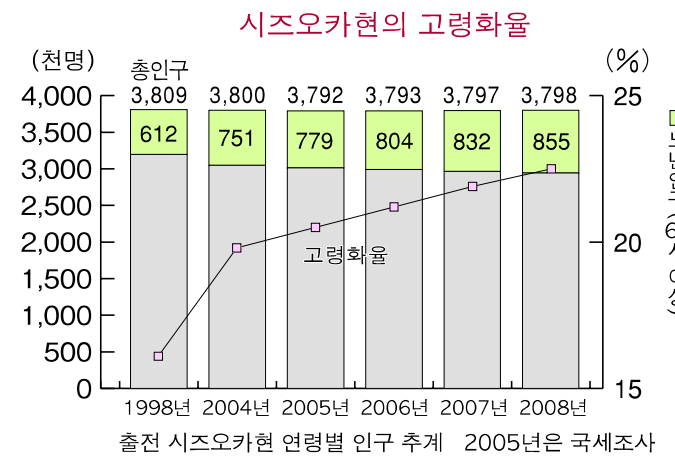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등 특별한 시설을 정비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이 부담을 느끼고 정상인과의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빚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공동 참여사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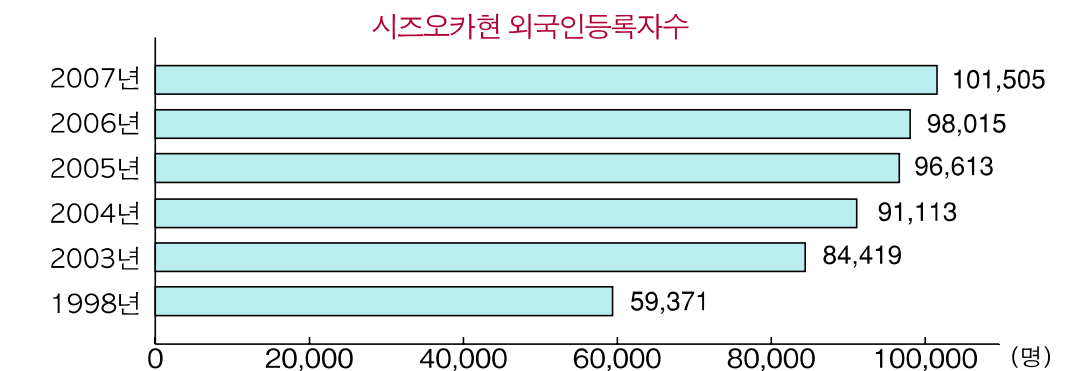
저출산 고령화 사회, 상호 교류시대를 맞이해 남녀노소 모두가 사회에 참여하는 「남녀노소 공동참여사회」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토대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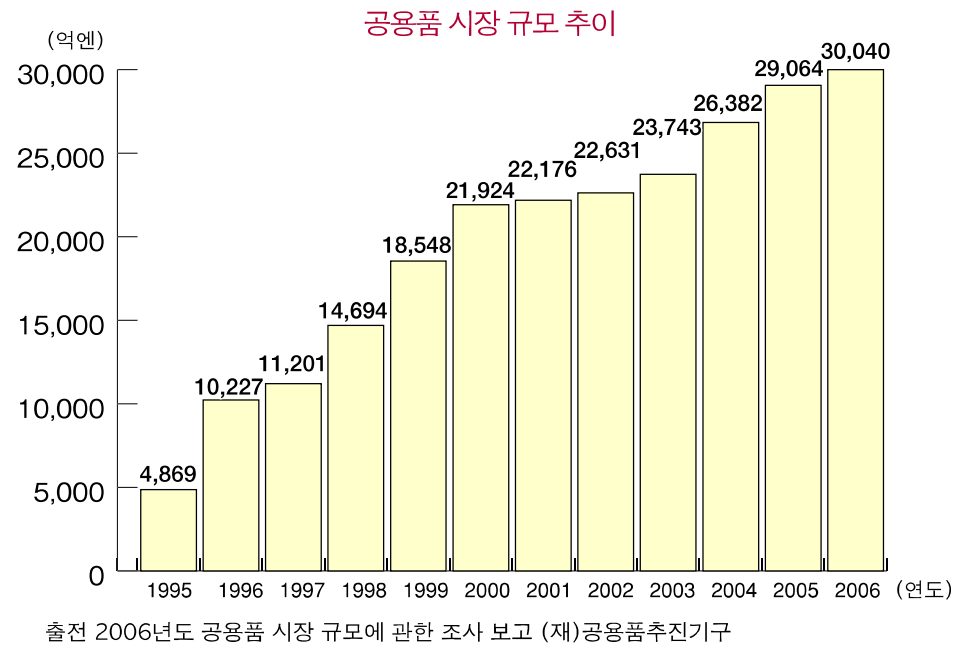


○21세기를 개척해 가는 산업 영역에 대한 대처

경제의 세계화와 고령화 사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세기형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환경 부하형 경제 활동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업 시설과 여관, 호텔의 시설 정비와 서비스에서부터 가전 제품 등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신체적 특성 등을 파악해 이를 제품 개발, 점포 정비, 고객 서비스 등에 활용해 가는데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경영 전략상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을 발전시키는 힌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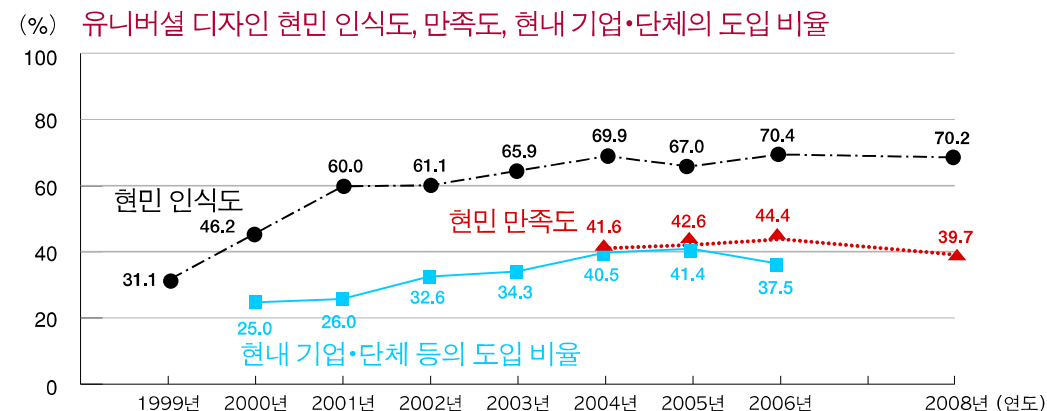


보급과 실천 현황

시즈오카현은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 계획에 입각해 현청 전체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현민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도는 31.1%였는데, 2008년도에는 70.2%로 올랐습니다. 또, 사업자의 도입 비율은 2000년도의 25%에서 2006년도에는 37.5%로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의 보급 활동을 비롯해 현 소유 시설에 대한 도입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 등에서 실천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리어프리 신법 시행으로 교통기관의 시설 정비, 도시 조성에 도입,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토대로 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큰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정년퇴직을 맞이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새로운 스타일의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정비가 더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지산 시즈오카공항의 개항으로 관광업계에서는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활기있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즈오카'의 실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현청이 총력을 기울여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합니다.
199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획부에 유니버설 디자인실 설치

시즈오카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도, 기획부에 유니버설 디자인실을 설치하고 현청이 직접 전체적인 진척 상황 관리와 이념의 보급 및 계몽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부서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현청 내에 의견이 분분했지만 「모든 행정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현의 종합적인 시책을 통괄하는 기획부로 정했습니다. 그 후 「생활·문화부」로 이관(2004년도)된 뒤, 2007년도의 부서 개편과 함께 현재의 「현민부」로 옮겨졌습니다.

추진본부 설립

현청이 총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현지사를 본부장으로 교육장과 현 경찰본부장, 각 부의 국장을 멤버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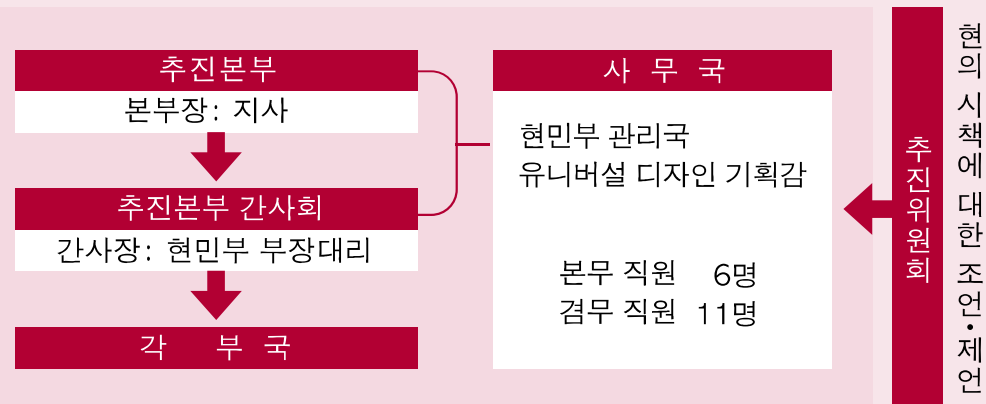
추진본부는 행동계획의 진척 관리, 매년도의 추진 방침과 각 부서가 연대해 실시하는 사업 테마 결정, 각 부서의 주요 사업에 관한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본부회의 결정사항> 1999년 4월 개최

- 유니버설 디자인을 현정의 기본 정책으로 정립한다.
- 지금까지 행정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 사례가 없으므로 뛰면서 생각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 각자의 소관 업무를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행동계획으로 종합한다.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체제(2008년도)



유식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1999년도에는 현의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유식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간담회」가 출범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향하는 사회상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착실히 실현해 가기 위한 행정, 현민, 사업자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으로 종합했습니다.

이듬 해 2000년도에는 간담회를 계승하는 형태로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들은 행동계획에 입각해 시책에 대한 조언과 제언, 현민과 사업자를 위한 강연회의 강사, 아이디어 공모 심사, 위탁 연구 평가 등을 맡아, 여명기의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의 방향성과 보급 추진 활동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현민의 인식도가 60 퍼센트를 넘은 2003년에는 전문위원회를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2005년에는 새로운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 시책과 사업의 실시 상황을 전문적으로 검증, 평가하는 외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고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으로서

가와우치 요시히코

(도요대학 교수, 전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

일본이 유니버설 디자인(UD)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적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은 일찍이부터 일본에서 처음으로 현민에 대한 의식을 계몽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1999년 4월에 개원한 ‘후지산 고도모노쿠니(어린이 나라)’ 등은 대단히 빠른 단계에서 과감하게 추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모두를 위한 공원 조성」(※1)이 그 해 7월에 발행된 것을 보더라도 그 선진성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상」 심사에 관여했던 것이 인상에 남는다. 또, 2004년에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10회 고령자, 장애인의 이동성과 교통에 관한 국제회의(TRANSED2004)」에서는 숙박 호텔에서 접대 훈련과 객실 어렌지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현재 UD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시즈오카현은 폭 넓은 인재와 경험을 살려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해 주기 바란다.

※1 : 「모두를 위한 공원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의한 설계 지침」
건설성 도시국 공원녹지과 감수,
사단법인 일본공원녹지협회 편집·발행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 책정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본부」는 현청이 하나가 되어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의 주요 시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행동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추진본부가 실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검증, 평가하는 등 효과적인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 계획기간 : 2000년도부터 2004년도

〈주요 시책 체계〉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보급
-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제품 만들기
-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 서비스·정보 제공
- 자립과 공생의 사회 건설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2010」 계획기간: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주요 시책 체계〉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보급
-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제품 만들기
-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 서비스·정보 제공
- 자립과 공생의 사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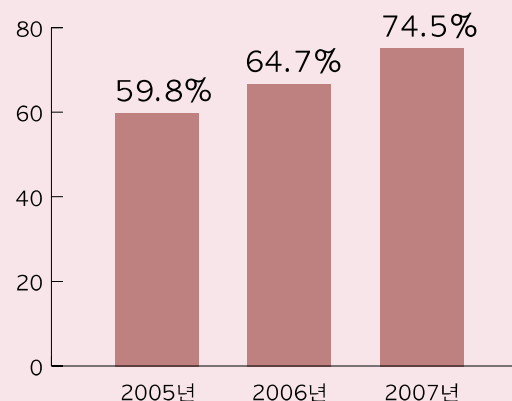
〈중점 추진 사항〉

- 사업자의 추진 촉진
- 어린이에 대한 보급
-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진행관리〉

목표 수치(102항목)을 설정해 내부 평가(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본부에 의한 실시 상황 파악)와 외부 평가(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회에 의한 실시 상황 검증, 평가)를 토대로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 2010」 (51% 이상 달성하고 있는 수치 목표의 비율)



계층별 직원연수 실시

현 행정의 폭 넓은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이해하고 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직과 신규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개념과 더불어 직원 스스로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느끼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의 모의 체험을 통해 현청 청사를 점검하는 체험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직원 연수 개요〉

- 관리직을 위한 연수·직원 연수(계층별)·신규 채용 직원 연수 (매년 실시)
- 현청 청사, 출장소에서 모의 체험을 통해 불편한 점을 점검

■ 초, 무라와 관련기관에서도 연수

초(町), 무라(村)의 신규 채용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연수와 출장소 직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요와 현의 실현 사례를 소개하는 연수회를 현내 각지에 있는 종합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 신속한 개수·개선

모의 체험을 통해 발견한 출입구의 단차 해소 등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개수는 즉각 공사에 착수하고, 새로운 예산 조치가 필요한 다목적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사 등은 필요성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개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고

유니버설 디자인 직원 연수

가모시다 아쓰코

(공공품추진기구 이사장, 전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간담회 부좌장)

유니버설 디자인(이후 UD로 칭함)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부지사의 요청을 받았다. 회장은 현청 20층에 있는 홀이었다. 지사, 부지사, 경찰서장 등 현의 주요 인사와 현내의 각 시, 초, 무라 대표가 많이 모였다. 당일은 디자인센터 스태프의 협력을 얻어 여러 참고 물품을 전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참석자 전원에게는 참고로 삼푸와 린스 세트를 배포하고 부서로 되돌아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했다. 시즈오카UD는 이 때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이시카와 지사와 당시 사카모토 부지사가 일찍이부터 UD개념을 받아들여 행정적으로 폭 넓게 추진해 온 시즈오카현의 UD가 10년을 맞이했다. 이제 시즈오카현은 UD현으로서 특기할 만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의 개인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다음 UD 10년은 더욱 치밀하고 섬세한 면이 요구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역시 인권이 기본이라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현민에 대한 보급

유니버설 디자인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민과 사업자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의 홍보지와 팸플릿, 홈페이지, 심포지엄,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와 언론을 통해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초·중학교와 시민단체, 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강좌나 체험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콘쿠르 실시

2000년도부터 매년,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세대의 사람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이디어 콘쿠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부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해 꿈이 있는 아이디어, 일반부에서는 실현성이 높은 미발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현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활동 부문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어린이부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표현한 포스터와 같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횡수를 거듭해 가면서 열기 쉬운 펌트병 마개나 고령자가 밤중에 일어났을 때 발밑을 비춰주는 침대 옆에 까는 매트 등 생활 속의 체험을 토대로 한 작품의 응모가 늘었습니다. 또, 일반부는 음성과 디지털 표시로 계측 결과를 알려주는 측정기구와 어린이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가족 모두가 쓰기 편한 세면대 등 제품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 수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창식(2008년 12월 16일)



기고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大賞)은 '미래 창조 사업'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심사위원장

시라이시 마사아키

(NPO법인 유니버설 사회공학 연구회,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심사위원장)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업으로, 특히 아동·학생들의 참가자가 많아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가 총수는 8,359건으로, 제1회 참가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시즈오카현의 미래 창조 사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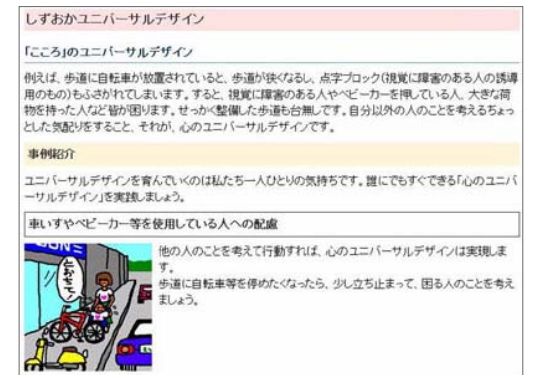
제안이 질적으로 향상된 것을 보여 준 것은 2005년입니다. 배리어프리에서 본격적인 UD로 비약해, 최근 EU의 특허 신청안을 선취한 디자인이 대상을 수상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시즈오카현의 선견지명에 의한 것으로 '스마트 파워'를 활용한 조직적인 노력과 더불어 가족, 학교 관계자가 진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 UD에 대한 인식과 그 파급 효과가 가져다 주는 아이디어와 영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UD의 시즈오카」와 현민이 당당하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체성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와 메일 매거진으로 정보 발신

21세기는 「사람, 물건, 정보」가 지구 규모로 교차하는 대규모 교류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세기형 사회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해외를 향해 정보를 적시에 발신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공공시설 및 사업자의 선진적 추진 사례, 시즈오카현이 작성한 지침과 매뉴얼 일람, 각종 강좌의 개최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쿼즈에 답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홈페이지가 있으며, 해외에서의 접속에 대응하기 위해 초창기부터 개설한 영어 홈페이지, 그리고 2007년도에 개설한 한국어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맞이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임하는 인재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시즈오카UD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이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약 400 여명입니다. 메일 매거진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최신 정보와 심포지엄, 강연회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기고

「정보 유니버설 디자인」

세키네 지가

(주식회사 유디트, 정보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소) 대표이사 전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

도시와 물건의 UD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평가와 반응이 UD를 더욱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단말기의 유용성, 웹사이트의 접근성 등 정보의 UD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법률로 공적기관과 기업의 조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홍보와 웹사이트 그리고 시즈오카현의 정보를 누구나 알기쉽게 만들어 쌍방향으로 정보를 수신, 발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민과 정보 제공·공유를 추진해 UD를 현내의 조달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기만을 허용해야 합니다. 관(官)은 UD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民)은 UD에 관한 지혜를 짜내는 것입니다. 관민이 함께 일 하는 「새로운 공(公)」이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21세기의 주역이 되어 사회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정보의 UD는 대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각종 매뉴얼과 지침 작성

유니버설 디자인을 현민 생활에 폭 넓게 도입해 가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 및 사업자의 사업에 맞는 도입 매뉴얼과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촉구하는 팸플릿 등 각종 보급용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행정 사업에 대한 도입 방안 제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도입 매뉴얼, 고령자와 색각 장애인이 보기 쉽고 읽기 쉬운 인쇄물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이벤트를 개최할 때의 배려 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를 만들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동에 대한 도입 매뉴얼을 업종 별로 작성

살기 좋은 사회를 실감할 수 있는 현민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업 활동에 도입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건축업 등 산업 분야 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아이디어와 힌트를 소개한 책자를 작성해 강습회 등에서 배포해 사업자의 도입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로, 건물 등의 공공시설 정비와 철도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기관이나 장애인용 주차장에서는 일반사람들이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을 우선시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소개하는 팸플릿 작성과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에 「나는 주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매너 향상 캠페인」을 실시해, 시설 정비와 더불어 중요한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해 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에 대한 도입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공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도로와 공공건축물 등 사회자본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 정비

「시즈오카현 도시조성 조례」에 입각해 이용하는 분들과 함께 미리 거리를 걸어보고 휠체어 사용자가 편히 오갈수 있도록 보도의 폭을 넓히고, 단차와 경사진 비탈길을 개선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와 알기 쉬운 안내 간판 등을 설치해 이동하기 쉬운 동선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 정비

「사용자의 시선에서」를 기본 이념으로, 먼저 시설 서비스의 특성과 이용 대상자를 상정·분석해 사람의 움직임, 필요한 설비 등을 감안한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상세히 설계에 반영하는 단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면에서의 정비와 소프트 대응을 융합해 각각 유리한 점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이 살아 숨쉬는 공공 건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거한 도시 조성

가와구치 료코

(주식회사 가와구치 건축도시설계사무소, 전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

「도시 조성」이라는 공공 공간 설계와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UD개념에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에 크나큰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관, 취향 등 여러 의견과 요망에 대해 공간적, 기술적, 경제적 제약이 많아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정말로 소중한 해야 할 목표와 납득할 수 있는 추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알게 된 UD의 「모든 사람의 디자인」이라는 말은 확고한 목표로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때 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조성」이 UD실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 각기 다른 입장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생각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면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도출해 낸다. 그리고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것으로 거듭 개선해 가면서 이상적인 UD에 접근해 간다. 이를 위한 제도와 추진 방법을 조율해 간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도시 조성에 관한 방식을 찾아냈다. UD에 감사할 따름이다.

현 소유 시설에 솔선 도입!

현 소유 시설에 솔선 도입!

유니버설 디자인을 현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현 소유 시설과 기존 시설을 정비, 보수함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정비와 더불어 알기 쉬운 안내 사인 설치와 직원의 적절한 대응 등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 **후지산 코도모노쿠니**(후지산 어린이 나라)는 공원 보도의 경사를 5% 이하로 하고, 음성유도안내, 촉지도(觸知図), 휠체어 대여 등 시설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1999년 개원)



■ **오가사야마 종합운동공원**은 스타디움과 아레나 외에도 JR 아이노역에서 공원까지의 연락 통로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두 곳의 계단과 움직이는 보도, 모노레일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디움 이층 최전열에 296석의 휠체어 사용자용 관중석을 설치했습니다. (2001년 사용 개시)



■ **현립 종합병원**의 외래 부문은 증축 등으로 복잡했던 병원 내의 안내표지를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점에서 개수 정비했습니다. 외국인도 알기 쉽도록 진료과와 검사 부문 등에 번호 표지를 붙였습니다. 아울러 시각 장애인이 발바닥 촉감으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교차지점의 바닥재를 바꾸는 등 5감을 통해 알 수 있는 표지로 정비했습니다. (2002년 실시)



■ **현영 주택**은 단차를 해소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며, 일층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를 배치했습니다. 부지 내에는 벤치를 다수 배치해 교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모든 입주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립 시즈오카암센터**(나가이즈미초)·**현 후지수영장**(후지시)·**현 부도칸**(후지에다시)·**현립 오히라다이고등학교**(하마마쓰시) 등의 정비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됐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유기적 연대 강화

부서간 유기적 대응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유기적인 연대는 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특정 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부서가 연대하면서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테마와 검토 결과>

■ 「사업자에 도입 촉진」

사업자·단체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별 아이디어·힌트집을 작성했습니다. (소매, 유통업, 호텔, 여관업, 제조업, 건축업편)

■ 「실감,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청사 방문객에 대한 직원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

■ 「저는 주차하지 않겠습니다 캠페인」

휠체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이해를 구하는 「매너 향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 원예」

농업·고용·복지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농업 체험장이 되는 시민 농원 개설과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고

아이디어·힌트집 「모두가 기뻐하는 점포 만들기」 제작에 즈음하여

스즈키 준

(NPO법인 유니버설 패션협회 부이사장, 전 시즈오카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위원)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가게를 이용하며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들 가게가 UD에 배려하면 일상 생활이 더 한층 풍요롭고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작을 하면서 사례를 모으는 데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가게 가운데 배리어프리나 UD를 도입한 가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꾸어 지역에서 사랑을 받는 인기있는 가게를 취재해 그 중에서 「UD의 옛센스」를 찾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기있는 가게일수록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상품 진열이나 가격표 부착, 접객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만을 민감하게 파악해 가게와 접객 서비스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자세가 고객의 지지를 받아 차차 인기있는 가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기뻐하는 점포 만들기」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게와 고객이 모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와의 교류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물론 구미와 아시아 등지에서 시즈오카현의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타이완, 프랑스, 캐나다의 대학과 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해외에서 강연을 했으며, 영국, 호주, 한국 등의 시찰조사단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서 인턴쉽 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해외와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세계회의에서 지사 강연

2008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 고령자단체 연맹 세계회의」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시즈오카 현지사가 초청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살기좋은 사회를 이룩하자」는 테마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추진된 공공시설과 시즈오카 현내 기업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령화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직원 상대로 강연

2008년 2월에는 지자체세계화협회 파리사무소가 주최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선진적 사업을 소개하는 행사에 초대 받아, 프랑스 지자체 간부 직원 응용연수소(몽펠리에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개별 대책은 이미 나와 있지만, 장애인, 고령자등 폭 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 매우 유효한 시책이다」라는 감상을 내놨습니다. 또, 신축하는 시설과 개수 비용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강연이 계기가 돼 이 연수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처음으로 연수 테마로 채용됐습니다.

제3회 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회의에서 정보 발신

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회 국제유니버설디자인회의」가 2010년 하마마쓰시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서는 연구자의 논문 발표와 함께 일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선진 기업의 전시회 등 최첨단 유니버설 디자인 정보를 발신하게 됩니다. 시즈오카현의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소개하고 아울러 현민이 최첨단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현내 기업의 대응

모든 사람이 살기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쉽고 모든 사람을 배려한 「도시, 물건,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도입은 물론 기업, 단체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업 활동에 도입해,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숙화된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입 사례>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즈오카 현내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사용하기 편한 변속 레버를 고를 수 있거나, 아이가 자동차를 탈 때 위험한 곳에 손을 대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상업 시설

시즈오카 현내의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도 쾌적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수유실과 다목적 화장실 설치, 넓은 통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주차장,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유도블록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텔·여관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객실과 단차가 없는 욕실, 가족 화장실 등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내에는 다수의 온천이 있는데 고령자와 휠체어 사용자, 외국인 등이 숙박하는 여관에서는 슬로프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또, 대욕탕에는 입구에서 욕조까지 이어지는 손잡이와 각국 언어로 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

택시 회사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양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일반 요금과 똑같이 설정해 병원에 갈 때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할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요구의 조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데 있어 고령자와 젊은층,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각각의 특성과 불편함에서 나오는 요구가 서로 상충돼 경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비롯해 사업자, 단체 등이 이에 대처하고 아울러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 지를 점검해 활발히 제안함으로써 상충되는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최적형 사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으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형 사회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 활동과 더불어 행정과 사업자가 이에 대처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성의 이해

행정을 비롯해 사업자, NPO, 현민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활기차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근간은 「모든 주민의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 단체 등에서 기획,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의식하고 이용자도 이러한 대응을 평가해,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시즈오카’를 지향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전제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20세기. 그러나 21세기는 모든 인류의 재산인 자연을 소중히 하는 환경의 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함께, 과학 기술의 진보로 인해 세계적으로 장수 사회가 도래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시, 초(町), 무라(村), 사업자, 단체, 현민이 연대와 협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활동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즈오카’」를 실현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더욱 진화시켜 가고자 합니다.



시즈오카현 현민부 유니버설 디자인 기획감

〒420-8601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9번 6호
(静岡市葵区追手町9番6号)

전화 054-221-3153 팩스 054-221-2827

이메일 ud@pref.shizuoka.lg.jp <http://www.pref.shizuoka.jp/ud/hangul/index.html>

2009년 3월 발행